

# 유아의 학습관련 사회적 기술을 예언하는 부모양육에 대한 연구

##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ing and children's learning related social skills

송진숙 · 권희경\*

배재대학교 가정교육과 조교수 · 건국대학교 유아교육과 부교수

JinSuk Song · Heekyoung Kwon

PaiChai Univ.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Assistant Professor ·

Konkuk University, Dep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Associate Professor

### Abstract

The present study examined variables relevant to children's learning-related social skills to determine predictive contributions of such variables as parenting behaviors and parenting competence. Subjects were 130 four and five years old children and their parents. Data were analyzed with mean, standard deviation, t-test, bivariate correlation, multiple regression,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Results indicated that passionate participation parenting and parenting competence were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children's learning-related social skills, and passionate participation parenting was the most critical predictors of children's learning-related social skills.

Key Words : parenting behavior, parenting competence, social skill

## I. 서론

###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유아기는 인지, 언어, 사회·정서, 신체 발달이 현저하게 이루어지는 시기로 유아의 초기 경험과 환경은 유아의 일생동안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유아가 접하는 환경 중 가정은 일차적 환경이며 가장 중요한 환경으로 작용한다. 그러므로 유아기에 부모의 양육태도 및 행동은 유아의 발달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사회화의 과정에 중요하게 인식되어져 왔다(김정희, 문혁준, 1998). 특히 바람직한 부모양육 행동이 유아의 성장과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강조되면서 점점 개개인 부모의 양육행동이 유아의 발달에 차이점을 유발시킨다는 연구에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아이들은 태어나서 부모의 돌봄 속에서 성인으로 성장해간다. 또한 부모와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화되어가며, 이때 부모의 양육태도는 유아의 성장발달에 매

우 큰 영향을 미친다(최정미, 2002). 유아는 성장해가면서 자신에 대한 사회의 규준과 가치가 다양화되는 것을 인지하게 되어 유아는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게 된다. 그러므로 유아가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하여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하고 발달해 나가는데 사회적 기술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부모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발달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들이 제시한 사실은 부모가 수용적이며 애정적인 양육태도로 자녀를 양육할 경우 유아들은 긍정적인 또래관계를 형성할 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안정된다고 한다. 반면 극단적인 제한, 처벌, 권위적인 태도로 유아를 양육할 경우 아이들은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형성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회성 발달도 저해된다고 밝히고 있다. 부모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사회적 적응행동에 관한 연구에서도 부모가 합리적이고 애정적인 양육태도를 가질 경우 유아들은 친사회적 행동을 보이고, 성취동기가 높아지며, 또래사이에 인기가 많으며, 사회성이 잘 발달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부모양육태도에 선행되는 일반적인 변인에 대한 연구 중 유아의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딸을 둔 부모보다 아들

\* Corresponding author: Heekyoung Kwon  
Tel: 043) 840-3383, Fax: 043) 851-9325  
E-mail: bluechess@kku.ac.kr

을 둔 부모가 더 엄격하고 통제적이라는 결과(권연희, 1995)가 있으며, 연령에 따라서는 유아의 연령이 많을수록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더 권위적이라는 결과가 있다(연미희, 1998). 국외의 연구(Lytton & Romney, 1991)를 보면 부모들은 여아보다 남아에게 성취력을 더 강조하고 통제 및 강제적인 훈육을 더 빈번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여아에게는 더 온정적인 양육태도와 의존심을 강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동안의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많은 연구에서 보여주듯 부모의 양육태도는 유아의 인성과 행동 양식의 중요한 변인으로 등장하였다. 긍정적인 양육태도의 부모를 둔 유아는 수단적 역량이 좋고 사회적인 자신감이 높게 나타났으며, 그렇지 않은 유아들보다 청소년 시기에 더 자율적·독립적이고 학업에 더 많은 흥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Baumrind, 1991; Dormbusch et al., 1989; Lamborn et al., 1991; Steinberg et al., 1989). 또한 따뜻하고 반응적인 부모를 둔 유아일수록 지적수준이 높고, 이타적이며, 순종적일뿐만 아니라, 자아존중감도 높고 타인을 배려하는 성향을 보인다고 보고하였다(Eisenberg et al., 1992; Estrada et al., 1987; Zahn-Waxler et al., 1979). Belsky(1990)의 연구에서도 민주적인 양육태도를 가진 부모의 자녀는 사려가 깊으며, 이타적이고, 남에게 관대할 뿐만 아니라, 협동성이 높으며 공격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의 연구에서 살펴보면 민주적인 양육태도를 가진 부모의 유아들은 사회적 역량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정영숙, 1993; 한인자, 1998). 박주희, 이은혜(2001)의 연구에 의하면 온정적이고 애정표현을 잘 하며 자율성을 격려해 주는 어머니를 둔 유아는 또래관계에서 유능한 경향을 보인다고 보고한다. 또한 도현심, 최미경(1998)에 따르면 수용적이고 온정적인 양육행동을 나타내는 부모를 둔 유아는 안정적이고 자신감을 보이고 자기 자신을 가치롭게 여긴다고 보고한다. 반면 무관심한 허용·방임적 양육행동을 보이는 어머니의 자녀는 자기통제력이 낮고 위축행동, 과잉행동, 공격행동, 퇴행행동 및 강박행동과 같은 정서적 부적응이나 반사회적 행동을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강기숙, 이경남, 2001; 김민정, 도현심, 2001; 김혜련, 1994; 연진영, 1992). 그리고 부정적인 양육태도를 가진 부모의 유아들은 더 공격적이며, 자신의 생활을 불행하다고 느끼고 사회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MacKinnon-Lewis et al., 1997; McDonald, 1992). 무관심한 부모를 둔 유아들은 사회적인 면과 학업성취 면에서 부족하고 청소년기에 매우 적대적이고 반항적인 경향을 보이고 반사회적 행동들(알콜중독과 약물중독, 문란한 성관계, 무단결석, 범죄 행위 등)을 보이는 것으로 연구결과

나타났다(Lamborn et al., 1991; Patterson et al., 1989). 박영애(1995)에 따르면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온정·수용적이라고 인지하는 아동은 많은 문제해결책을 제시하였고, 반면 적대적·거부적이라고 인지하는 아동은 문제해결책을 거의 제시하지 못했다. 부모의 양육태도가 온정적이라고 인지하는 아동일수록 도움, 협동, 나눔, 위로 등과 같은 사회적 행동 영역에서 높은 점수를 보였고, 대인관계에서도 바람직한 특성을 보였다(이영주, 1990; 최승원 외, 1998). 또한 통제 차원에서도 부모의 통제가 적극적이고 자녀가 해야 할 일을 설정하고 지도해 줄수록 도움성, 이타성, 협동성이 높은 점수를 보였다. 어머니가 유아에게 반응을 많이 할수록 유아는 더 사교적이 되며, 어머니가 유아를 합리적으로 지도하는 경우 유아는 다른 사람에게 협조적이며(홍계옥, 2001),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에는 부모의 애정적 양육행동의 설명력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최정미, 2002).

부모의 양육행동과 마찬가지로 부모의 양육효능감도 유아의 발달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양육효능감(parenting self-efficacy)은 밴두라의 자아효능감(self-efficacy) 연구에서 파생되어 나온 개념으로 부모의 자아효능감을 양육에 적용시킨 것이다(Bandura, 1997; 최형성, 정옥분, 2001). 양육효능감은 부모가 자녀양육에 대하여 중요한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확신하는 것으로 자녀의 행동을 관리하고 자녀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음을 지각하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다(Dumka et al., 1996). 또한 양육효능감은 부모로서의 과업을 완수하고 아동의 긍정적인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능력에 대한 부모 자신의 인지(Scheel & Rieckman, 1998)라고 정의한다. 이와 같이 양육효능감에 대한 학자들의 정의가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양육효능감은 일반적으로 자녀를 바람직하게 양육하기 위해 필요한 부모역할 수행능력에 대한 부모 자신의 신념이다. 양육효능감은 양육과 관련된 요인들과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유아의 전반적인 발달과 더불어 살펴보는 연구로 수행되어져 왔다. 즉 부모가 자신의 양육에 대한 효능감이 높을수록 유아들의 긍정적인 발달을 도모하는 행동을 보여주며 이로 인해 유아의 발달이 촉진된다고 보고한다. 선행연구들(Coleman & Karrake, 1997; Dumka, et al., 1996; Gondoli & Silverberg, 1997; Teti & Gelfand, 1991)에 의하면, 양육효능감이 높은 어머니는 자녀들을 수용하고 체벌하지 않으며 자녀를 잘 이해하고 자녀와 상호작용을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양육효능감이 낮은 어머니는 통제적이고 강압적이며 체벌을 많이 하고 학대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보고한다. 지금까지 부모의 양육태도와 관련된 연구들은 다양하게 연구되어져 왔으나 양육효능감과 연관된 연구들은 그리 많지 않다. 특히 부모의 양육태도와 관

련하여 부모의 양육효능감이 강조되는 이유는 부모양육태도의 잠재적인 근원으로 부모가 지각하는 자기효능감이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문혁준, 1999). 또한 몇몇 선행연구들에서(문혁준, 1999; 우회정, 이숙, 1994) 양육효능감과 자녀양육 태도와는 긍정적인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가 지각하는 양육효능감이 높을수록 양육태도가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사회적 기술은 인간이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기술을 말한다(Ford, 1982).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술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회적 기술은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것이며, 사회적 기술이 좋은 사람은 그 사회에 잘 적응해 나갈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기술은 인간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주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므로 사회적 기술이 좋은 유아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형성하고 유지할 것이며, 그렇지 못한 유아는 부적응 행동을 보이게 되는 것이다. 사회적 기술은 인간에게 없어서는 안 될 기술이며 사회적 기술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통해 인간의 삶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O'Mally, 1977).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학습관련 사회적 기술(learning-related social skills)은 교사의 지시를 듣고 따르거나 집단 활동에 적절하게 참여하고 과제를 끝까지 수행하는 행동이다(Cooper & Farran; 1988, 1991). 학습관련 사회적 기술을 개념화하는 방식에 따라 사용하는 용어 또한 자기통제, 과제수행력(mastery skills), 사회적 능력(social competence) 등과 같이 약간의 차이가 있다. McClland와 동료들(2000)은 학습관련 사회적 기술을 집단 활동에 잘 참여하고 다른 아이들과 잘 협력할 줄 아는 협력성, 자신의 의견을 적절하게 표현하는 주장성, 갈등상황에서 감정을 적절하게 조절하는 자기 통제, 맡은 일을 적절히 수행하는 책임감, 과제나 활동을 할 때 집중하거나 도움을 청하지 않고 성공적으로 잘 완성하는 과제수행행동 등의 개념을 함유하는 것으로 보았다.

사회적 기술이 부족한 유아는 또래거부, 행동문제, 낮은 학업성취 등의 많은 문제를 가지게 되는 반면, 사회적 기술이 발달한 유아는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고, 학업성취도가 높으며, 읽기와 수학능력에서도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다(Alexander, Entwisle, & Dauber, 1993; Cooper & Farran, 1988; Ladd & Price, 1987; Ladd, Kochenderfer, & Coleman, 1996; McClelland, Morrison, & Holmes, 2000). 이와 같이 유아가 학교생활의 성공적인 적응과 학업성취를 위해 사회적 기술을 기르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어 이 분야의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간과하지 않을 수 없다.

사회적 기술과 관련된 연구들에서 밝히고 있는 사실은

유아 시기의 사회적 기술이 청소년 이후의 성공적인 발달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연구결과(Petit et al, 1988)를 보인다.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뿐 아니라 타인을 이해하며 공감하는 능력을 가진 유아일수록, 새로운 환경이나 사람과의 관계에 쉽게 적응할 수 있게 되며 이러한 원만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능력은 유아교육기관에서의 적응뿐만 아니라 후에 학교생활에도 잘 적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또한 유아기에 사회적 기술이 잘 발달된 경우에는 학업성취도와 학교에 대한 적응력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사회적 기술이 부족한 유아의 경우에는 또래로부터 거부를 당하거나, 문제행동을 일으키며, 학업성취도도 낮은 반면, 사회적 기술이 발달한 유아들은 학교적응력이 높고, 읽기와 수학 능력도 높았다(Kochenderfer & Coleman, 1996; McClelland, Morrison, & Holmes, 2000).

한편, 학습관련 사회적 기술에서 낮은 점수를 보여준 유아들의 개인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부주의하며, 충동적이고, 교사의 지시를 잘 따르지 않는 경향을 보여주었고, 여아보다는 남아가 학습관련 사회적 기술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Speece & Cooper, 1990). McClelland와 Morrison(2003)의 단기종단 연구에 의하면, 어린 유아에게도 학습관련 기술에서 개인차가 밝혀졌으며 이러한 개인차는 학년이 높아져도 변화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즉 유아기에 학습관련 기술에서 낮은 점수를 얻은 유아는 고학년이 되어서도 학습관련 기술 점수가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유아의 사회적 기술은 유아기 이후에 성공적인 학교생활이나 학교적응에 매우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아의 사회적 기술과 관련된 연구들은 부족하며 특히 부모의 양육행동 및 양육효능감과 관련된 연구도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부모의 양육행동 및 양육효능감과 유아의 학습관련 사회적 기술과의 관련성을 밝혀주는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 2. 연구문제

연구목적에 의해 설정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부모의 양육행동 및 양육효능감과 유아의 학습관련 사회적 기술의 경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부모의 양육행동 및 양육효능감과 유아의 학습관련 사회적 기술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3. 유아의 학습관련 사회적 기술을 예측하는 설명력 있는 변인은 무엇인가?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을 선정하기 위해 서울지역에 소재한 2개 유치원을 임의 표집하였다. 연구대상의 구성은 만4세와 5세 유아로 총 130명이었다. 전체 연구대상 중 남아가 53명(40.8%)이었으며 여아가 77명(59.2%)이었다. 연령별로는 만 4세가 52명(40%)이었으며 만 5세가 78명(60%)이었다.

### 2. 연구도구

#### 1) 부모의 양육행동

자녀의 발달 영역 양육행동 문항은 Lawton(1984)의 Parenting Behavior Q-sort의 72문항중 안지영(2001)이 수정하여 사용한 25문항을 사용하였다. 25문항은 신체발달(8문항), 인지발달(8문항), 사회정서발달(9문항) 영역으로 구분되어있다. 일반적 양육행동 척도는 안지영(2001)이 번안·수정한 25문항으로 자율격려(8문항), 통제(3문항), 적극적 참여(8문항), 방임허용(6문항)의 4개 영역으로 구분된 것을 사용하였다. 부모가 자신의 양육행동에 대해 1점에서 5점 사이로 평가하는 5점 평정척도로 구성되었다.

#### 2) 부모의 양육효능감

부모의 양육효능감은 Floyd, Gillion, Costigan(1988)의 Perceived Parenting Competence를 안지영(2001)이 번안·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총 15문항으로 부모역할에 대한 자신감을 측정하는 문항과 부모 역할에서 자신을 통제하거나 아이를 다루기 어려워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부모의 양육태도와 마찬가지로 부모가 자신의 양육효능감을 1점에서 5점으로 평가하는 5점 평정척도이었다.

#### 3) 학습관련 사회적 기술

유아의 학습관련 사회적 기술은 McClelland와 Morrison(2003)이 사용한 도구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학습관련 사회적 기술은 협력성(10문항), 자기주장(10문항), 자기조절(10문항), 과제수행행동(14문항)으로 구성되어 총 44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담임교사가 평소 유아의 행동관찰을 토대로 1~5점 범위 내에서 평가하며 합산한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영역의 행동 빈도가 높은 것을 의미 한다.

### 3. 자료분석

부모의 양육행동, 양육효능감, 유아의 학습관련 사회적 기술의 일반적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에 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유아의 성별과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t 검증을 실시하였다. 또한 부모의 양육행동, 양육효능감이 유아의 학습관련 사회적 기술을 얼마나 설명하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관계분석과 중다회귀분석, 그리고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III. 연구결과

### 1. 부모의 양육행동 및 양육효능감과 유아의 학습관련 사회적 기술의 일반적 경향

부모의 양육행동 및 양육효능감의 일반적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각 하위 영역의 평균을 산출하였으며 각 영역의 문항으로 나누어 주어 각 하위 영역간의 평균의 차이를 비교 하였다. 각 하위 영역의 점수의 범위는 문항수로 나누지 않고 부모들의 응답점수의 최저점수와 최고점수를 제시하였다. 신체발달 양육행동의 평균은 3.69, 인지발달 3.47, 사회정서발달 4.00, 적극적 참여 3.44, 자율격려 2.98, 방임적 허용 1.96, 통제 2.96, 양육효능감 3.01이었다. 응답자 부모의 양육행동과 양육효능감 중 사회정서발달에 관한 양육행동 점수가 가장 높았으며 가장 낮은 점수는 방임적 허용의 양육행동이었다. 전체 연구대상 부모 중 보통(3)점 보다 낮은 평가를 한 부모는 48%정도이었으며 각 하위영역별로 보통보다 낮은 평가를 한 부모의 비중은 21%에서 39%사이로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표 1> 부모의 양육행동과 양육효능감의 평균과 표준편차

변인	M(SD)	범위
신체발달	3.69(0.48)	20-38
인지발달	3.47(0.56)	15-42
사회정서발달	4.00(0.48)	24-45
적극적참여	3.44(0.55)	15-37
자율격려	2.98(0.48)	14-34
방임적 허용	1.96(0.58)	6-21
통제	2.96(0.61)	4-14
양육효능감	3.01(0.20)	37-52

방임허용 부모양육행동에서 보통보다 낮은 점수를 평가한 부모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양육효능감의 범위는 2.47에서 3.47이었으며 양육효능감 점수가 3점보다 낮은 부모의 비중은 41%이었다.

유아의 성별에 따라 부모의 양육행동과 양육효능감이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하였으나(표 2 참조),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한편, 연령에 따라 부모의 양육행동과 양육효능감이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한 결과(표 3 참조), 만 4세와 5세의 부모의 양육행동 중 적극적 참여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만 5세 부모의 적극적 참여적 양육행동이 만 4세 부모보다 평균이 높아 연령이 많은 유아의 부모가 양육행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의 학습관련 사회적 기술의 일반적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부모의 양육행동과 마찬가지로 각 하위 영역의

평균을 산출한 뒤 각 영역의 문항으로 나누어 주어 평균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또한 각 하위 영역의 점수의 범위는 문항수로 나누지 않고 각 영역별 응답점수의 최저점수와 최고점수를 제시하였다. 다(표 4 참조), 유아의 학습관련 사회적 기술의 전체 평균은 3.40이었으며 협력성, 자기주장, 자기조절 중 협력성 평균이 3.45로 가장 높았다. 과제수행행동은 총 14문항으로 구성되어 최고 70점의 점수를 얻을 수 있다. 유아의 과제수행행동 평균은 3.27이었다. 학습관련 사회적 기술의 총점 범위는 2.41에서 4.5로 평가 점수의 범위가 상당히 컸다. 전체 연구대상 유아 중 3점 보다 낮은 평가를 받은 유아는 48%이었으며 하위 영역별로 보통보다 낮은 평가를 받은 유아의 비중은 39에서 44%로 유사한 경향을 보였으며 과제 수행행동 영역에서 보통보다 낮은 평가를 받은 유아는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의 성별에 따라 학습관련 사회적 기술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하였다. 성별에 따라 협력성, 자기주장, 자기조절에서 차이가 있었으며 과제수행행동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전체적으로 남아보다는 여아가 평균이 높아 여아의 학습관련 사회적 기술이 더 발달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유아의 연령에 따른 학습관련 사회적 기술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한 결과(표 6 참조) 연령에 따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유아의 성별에 따른 부모의 양육행동 및 양육효능감의 차이

변인	남아 M(SD)	여아 M(SD)	t값
신체발달	3.76(0.42)	3.65(0.52)	1.14
인지발달	3.47(0.49)	3.46(0.61)	.11
사회정서발달	3.95(0.47)	4.02(0.48)	-.82
적극적참여	3.49(0.50)	3.41(0.58)	.88
자율격려	3.04(0.46)	2.94(0.47)	1.14
방임적 허용	1.97(0.59)	1.96(0.58)	.07
통제	2.90(0.74)	3.00(0.52)	-.96
양육효능감	2.99(0.20)	3.02(0.20)	-.81

<표 3> 유아의 연령에 따른 부모의 양육행동 및 양육효능감의 차이

변인	만4세 M(SD)	만 5세 M(SD)	t값
신체발달	3.62(0.51)	3.74(0.46)	-1.45
인지발달	3.41(0.58)	3.51(0.55)	-.99
사회정서발달	3.95(0.49)	4.02(0.47)	-.83
적극적참여	3.32(0.57)	3.52(0.52)	-2.10*
자율격려	2.99(0.42)	2.98(0.51)	.20
방임적 허용	1.95(0.51)	1.97(0.63)	-.13
통제	2.96(0.66)	2.96(0.59)	-.00
양육효능감	3.02(0.21)	3.00(0.20)	.48

\*p < .05

<표 4> 학습관련 사회적 기술의 평균과 표준편차

변인	M(SD)	범위
협력성	3.45(0.44)	22-46
자기주장	3.25(0.44)	24-45
자기조절	3.28(0.41)	24-42
과제수행행동	3.27(0.49)	28-66
전체	3.40(0.36)	106-198

<표 5> 유아의 성별에 따른 학습관련 사회적 기술의 차이

변인	남아 M(SD)	여아 M(SD)	t값
협력성	3.28(0.44)	3.55(0.41)	-3.63**
자기주장	3.14(0.43)	3.33(0.43)	-2.43*
자기조절	3.10(0.40)	3.39(0.37)	-4.30**
과제수행행동	3.44(0.52)	3.54(0.46)	-1.18
전체	3.29(0.39)	3.46(0.95)	-3.32**

\*p < .01 \*\*p < .001

<표 6> 유아의 연령에 따른 학습관련 사회적 기술의 차이

변인	만4세 M(SD)	만5세 M(SD)	t값
협력성	3.43(0.48)	3.46(0.41)	-.37
자기주장	3.28(0.46)	3.23(0.43)	.60
자기조절	3.36(0.38)	3.22(0.42)	1.87
과제수행행동	3.45(0.52)	3.53(0.46)	-1.02
전체	3.38(1.18)	3.38(0.35)	1.0

## 2. 부모의 양육행동 및 양육효능감과 유아의 학습관련 사회적 기술과의 관계

부모의 양육행동 및 양육효능감과 유아의 학습관련 사회적 기술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부모의 양육행동과 효능감은 유아의 학습관련 사회적 기술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부모의 인지발달과 관련된 양육행동은 협력성( $r=.17$ ,  $p<.05$ ), 자기주장( $r=.28$ ,  $p<.01$ ), 학습관련 사회적 기술 총점과( $r=.20$ ,  $p<.05$ ) 긍정적 관련이 있었으며, 사회정서발달과 관련된 양육행동은 자기주장( $r=.23$ ,  $p<.01$ ), 사회적 기술 총점과( $r=.21$ ,  $p<.01$ ) 긍정적 관련이 있었다. 적극적인 참여를 보이는 부모의 양육행동은 협력성( $r=.23$ ,  $p<.01$ ), 과제수행행동( $r=.27$ ,  $p<.01$ ), 사회적 기술 총점과( $r=.26$ ,  $p<.01$ ) 긍정적 관련이 있었으며, 자율적 격려를 보이는 부모의 양육행동은 과제수행행동과( $r=.17$ ,  $p<.05$ ) 긍정적 관련을 보였다. 즉 부모가 인지발달과 사회정서발달, 적극적 참여, 자율적 격려를 보이는 양육행동을 하게 되면 유아의 학습관련 사회적 기술이 발달됨을 알 수 있었다. 양육효능감은 과제수행행동과( $r=.18$ ,  $p<.05$ ) 정적인 관계를 보였다. 한편, 방임적 허용을 보이는 부모의 양육행동은 협력성과( $r=-.17$ ,  $p<.05$ ) 부적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의 양육행동이 방임적 허용

을 보이면 유아의 협력성은 떨어짐을 알 수 있다.

## 3. 유아의 학습관련 사회적 기술을 예측하는 부모변인들

### 1) 유아의 학습관련 사회적 기술을 예언하는 중다회귀 분석

유아의 학습관련 사회적 기술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검증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부모의 적극적 참여 양육행동은 유아의 학습관련 사회적 기술을 예측하는 유의미한 변인이었다( $F(8, 121)=1.83$ ,  $p<.05$ ). 하위 영역 중에서 인지발달, 사회정서발달의 부모 양육행동은 자기주장과( $F(8, 121)=2.35$ ,  $p<.05$ ), 적극적 참여의 부모 양육행동은 과제수행행동의( $F(8, 121)=2.46$ ,  $p<.05$ ) 학습관련 사회적 기술을 예언 하는 변인이었다. 자기주장의 경우는 이 변인들의 설명력이 13%이었으며, 과제수행행동은 14%, 학습관련 사회적 기술 전체의 경우는 설명력이 11%로 그리 높은 편은 아니었다.

### 2) 유아의 학습관련 사회적 기술을 예언하는 단계별 중다회귀분석

유아의 학습관련 사회적 기술을 예언하는 변인들의 설명력을 알아보기 위해 단계별 중다회귀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9>에 제시되어 있다. 협력성에 대한 적극적 참여의 부모 양육행동의 설명력은 5%이었다. 자기주장에 대한 인지발달 부모 양육행동의 설명력은 7%이었다. 과제 수행행동의 경우는 적극적 참여 부모양육행동이 7%의 설명력을 양육효능감이 3%의 설명력을 가져 10%의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의 학습관련 사회적 기술 전체에서 설명력을 가지는 변인은 적극적인 참여로 7%의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가 양육행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유아의 학습관련 사회적 기술을 높여주는 주요한 사항임을 알 수 있다.

<표 7> 부모의 양육행동 및 양육효능감과 유아의 학습관련 사회적 기술과의 상관관계

변인	신체 발달	인지 발달	사회정서 발달	적극적 참여	자율 격려	방임적 허용	통제	양육 효능감
1. 협력성	.13	.17*	.16	.23**	.07	-.17*	-.01	.14
2. 자기주장	.09	.28**	.23**	.16	.03	-.02	.11	.04
3. 자기조절	.01	.11	.13	.12	.09	-.07	.03	.09
4. 과제수행행동	.15	.09	.14	.27**	.17*	-.14	.08	.18*
전체	.13	.20*	.21*	.26**	.12	-.13	.07	.10

\* $p < .05$  \*\*  $**p < .01$  \*\*\* $p < .001$

<표 8> 유아의 학습관련 사회적 기술에 대한 부모양육행동 및 양육효능감의 종다회귀분석

	부모양육행동 및 양육효능감	B	β	t	
협력성	신체발달	-.15	-.13	-.99	F(8, 121)=1.55 R <sup>2</sup> =.09
	인지발달	.08	.08	.66	
	사회정서발달	.04	.03	.25	
	적극적참여	.21	.21	1.49	
	자율격려	.02	.02	.17	
	방임적 허용	-.10	-.08	-.79	
	통제	-.03	-.01	-.15	
	양육효능감	-.24	-.16	-1.85	
자기주장	신체발달	-.27	-.24	-1.84	F(8, 121)=2.35* R <sup>2</sup> =.13
	인지발달	.30	.30	2.57**	
	사회정서발달	.27	.26	2.00*	
	적극적참여	.03	.03	.23	
	자율격려	.03	.03	.28	
	방임적 허용	.21	.17	1.65	
	통제	.15	.06	.06	
	양육효능감	-.14	-.10	-.10	
자기조절	신체발달	-.22	-.21	-1.57	F(8, 121)=.91 R <sup>2</sup> =.06
	인지발달	.07	.08	.67	
	사회정서발달	.13	.14	.99	
	적극적참여	.08	.09	.64	
	자율격려	.13	.12	1.17	
	방임적 허용	-.01	-.01	-.04	
	통제	.12	.05	.55	
	양육효능감	.09	.07	.75	
과제수행행동	신체발달	-.12	-.07	-.51	F(8, 121)=2.46* R <sup>2</sup> =.14
	인지발달	-.16	-.10	-.89	
	사회정서발달	-.04	-.03	-.19	
	적극적참여	.51	.33	2.44**	
	자율격려	.26	.14	1.50	
	방임적 허용	-.11	-.06	-.60	
	통제	.53	.14	1.53	
	양육효능감	-.36	-.16	-1.84	
전체	신체발달	-.76	-.19	-1.42	F(8, 121)=1.83* R <sup>2</sup> =.11
	인지발달	.29	.08	.70	
	사회정서발달	.40	.11	.81	
	적극적참여	.83	.23	1.70*	
	자율격려	.43	.10	1.07	
	방임적 허용	-.01	-.01	-.01	
	통제	.77	.09	.94	
	양육효능감	-.64	-.12	-1.40	

\*p < .05, \*\*p < .001

&lt;표 9&gt; 유아의 학습관련 사회적 기술에 대한 부모양육행동 및 양육효능감의 단계별 종다회귀분석

	부모양육행동 및 양육효능감	B	$\beta$	R <sup>2</sup> 누적량
협력성	단계1			.05
	적극적참여	.24	.24	F(1, 129)=7.66**
자기주장	단계1			.07
	인지발달	.21	.48	F(1, 129)=1.00**
과제수행행동	단계1			.07
	적극적참여	.42	.26	F(1, 129)=10.15**
	단계2			.10
	적극적참여	-.39	-.18	F(2, 128)=7.43***
	양육효능감			
전체	단계1			.07
	적극적참여			F(1, 129)=9.37**

####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부모의 양육행동 및 양육효능감과 유아의 학습관련 사회적 기술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수행되었다.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지역에 소재한 2개 유치원에서 만 4세와 5세 유아로 총 130명이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의 성별과 연령에 따라 부모의 양육행동과 양육효능감이 차이가 있는 것을 살펴본 결과 연령에 따른 차이가 적극적인 참여를 하는 부모 양육행동에서만 발견되었다. 즉 부모는 유아의 나이가 많은 경우 자녀 양육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우리나라 부모들의 높은 교육열과 연관 지어 이해되어 질 수 있다. 또한 본연구에서 측정된 부모의 양육행동에 관한 설문지 중 적극적인 참여와 관련된 문항들을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1) 아이에게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놀이시설이나 공원에 데리고 간다. 2) 자녀 양육의 도움을 받기 위한 시도를 한다(전문가에게 문의하기, 육아 서적, 인터넷 사이트를 찾아보기 등). 3)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것이나, 아이가 불만을 책, 노래들을 찾아본다. 이와 같은 문항들은 부모의 양육행동 중 나이가 많은 유아들을 대상으로 부모가 교육적인 양육행동을 하는지의 여부와 부모가 적극적인 참여를 하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문항들로 4세 유아보다는 5세 유아들에게 더 필요한 양육행동으로 보여지며 이로 인해 부모의 양육행동 중 적극적 참여와 관련된 부분에서만 연령차이가 보여진 것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의 결과는 유아의 연령이 많을수록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더 권위적이었다는 국내연구 결과와는(연미희, 1988) 상반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불일치된 연구결과는 연미희(1988)의 연구가 수행된

시기와 본 연구의 수행시기가 20년의 차이를 두고 수행된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부모 양육행동이나 태도와 관련되어 수행된 연구들이 일관성 있게 밝히고 있는 사실은 부모가 권위적인 행동으로 자녀를 양육할 경우 자녀의 인지, 사회정서 언어 등 발달의 전 분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었다. 따라서 부모는 긍정적이며, 적극적이고, 애정적인 태도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계인하고 있다(김정희, 문혁준, 1998; 박주희, 이은혜, 2001).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다양한 부모관련 교육 프로그램, 부모교육, 대학교과과정에서의 부모교육 강좌 등을 통해 부모나 예비부모들에게 전달되었으며 부모 양육태도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있었다. 즉 20년 전보다는 현대에서의 부모양육행동의 중요성을 사회구성원들이 훨씬 더 많이 지각하고 있음으로 인해 부모의 양육행동이 연령에 따라 차이가 나타날 뿐 아니라 유아의 연령이 많아질수록 부모가 적극적 참여를 더 많이 하는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여진다.

둘째, 유아의 성별과 연령에 따라 유아의 학습관련 사회적 기술의 경향을 살펴보면 성별의 차이는 있었으나, 연령별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협력성, 자기주장, 자기조절에서는 차이가 있었으나 과제수행행동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즉, 학습관련 사회적 기술의 경우에는 남아보다는 여아가 평균이 높아 여아의 학습관련 사회적 기술이 더 발달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의 학습관련 사회적 기술과 문식성 발달과의 관계를 살펴본 우리나라의 연구결과와 외국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안선희, 권희경, 2005; 안선희, 김선영, 2004; McClelland, Morrison & Holmes, 2000). 이는 유아기에는 여아들이 남아들보다 더 사교적이며 교사와 더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더 많이 하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지며, 또한 통념적으로 남아들이 여아에 비해 더 공격적이며



다루기 힘든 존재라고 여겨지는 것에 기인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본 연구 결과에서 학습관련 사회적 기술이 연령에 따른 차이가 발견되지 않은 것은 기존의 연구결과와는 상반되는 것이다(안선희, 권희경, 2005).

셋째, 부모의 양육행동 및 양육효능감과 유아의 학습관련 사회적 기술에서는 인지발달, 사회성 발달 양육행동과 적극적으로 양육에 참여하는 행동이 유아의 학습관련 사회적 기술과 관련이 있었다. 즉 부모가 유아의 인지발달과 사회성 발달과 관련된 양육행동을 많이 할수록 그리고 좀 더 적극적으로 양육행동에 참여할수록 유아의 학습관련 사회적 기술 능력은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 양육행동과 관련된 선행연구 결과들은 부모가 수용적이고 애정적이며 권위적이지 않을 때 유아의 사회성 발달이 도모되며,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긍정적인 또래관계를 형성하고 사회에 대한 적응력이 높아지고 성취동기가 높아지는 등의 매우 긍정적인 결과 들을 제시하고 있다(도현심, 최미경, 1998; 정영숙, 1993; 한인자, 1998; 박주희, 이은혜, 2001; Baumirind, 1991; Dormbusch et al., 1989; Lamborn et al., 1991; Steinberg et al., 1989). 본 연구의 결과도 선행연구 결과 등과 일치하는 결과이며, 특히 본 연구에서는 부모가 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부모 역할 중에 하나임을 시사하는 연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자율적려와 같은 기존에 수행된 연구들에서 바람직한 양육태도라고 여겨졌던 부모 양육행동은 설명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통제가 유아의 학습관련 사회적 기술을 설명하는 변인으로 나타나지 않아 홍계옥(2001)과 최정미(2002)등의 연구와는 상반되는 결과이다. 부모가 유아의 할 일을 설정하고 지도하는 등의 적절한 통제를 하게 되면 유아는 타인에게 이타적이고 협동심도 오히려 높아진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통제와 관련된 양육행동은 학습관련 사회적 기술을 설명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추후연구에서는 부모와의 심층면접 등을 통해 그 이유를 밝히는 것도 의미있는 일이라 여겨진다.

넷째, 부모의 인지발달 및 사회성 발달을 도모하는 양육행동은 유아의 학습관련 사회적 기술 중 자기주장과 관련된 능력을 설명하며, 부모가 적극적으로 양육행동에 참여하는 것은 유아의 과제 수행 행동을 높여주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부모가 양육행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유아의 학습관련 사회적 기술을 가장 잘 예언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가 유아의 인지발달 및 사회성 발달을 도모하는 양육행동을 수행할 경우 유아의 자신의 의사를 분명하게 표현할 수 있는 자기주장 능력이 발달하게 됨을 시사한다. 또한 유아의 학

습을 도와주거나, 학습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는 등 부모가 적극적으로 양육행동에 참여할 경우 유아가 과제나 활동을 할 때 집중하고 혼자 힘으로 조직하고 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성하는 과제수행행동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유아의 학습관련 사회적 기술 능력이 전체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은 첫째, 연구대상이 서울의 일부지역에 소재한 유아교육기관에 한정되었기 때문에 결과의 일반화에 무리가 있다고 보며, 둘째, 유아의 학습관련 사회적 기술의 평가는 교사에 의해 이루어졌고 부모의 양육행동과 양육효능감의 경우는 부모 자신이 평가함으로써 부모의 양육과 유아의 학습관련 사회적 기술과의 관련성이 제대로 설명되지 않은 듯하다. 즉 부모가 자신의 양육행동에 대해 평가하고 유아에 대한 평가도 부모를 통해 자료를 수집했다면 좀 더 설명력 있는 결과가 나왔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자료수집과정에서 부모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어려운 점이 있었으며 교사의 평가가 좀 더 객관적이라고 여겼으나 실제로는 다른 결과가 나온 원인이 될 수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교사평가뿐만 아니라 부모 평가까지 포함하여 다층적인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 사용되어진 변인 이외에도 유아의 사회적 기술에 관련된 그 밖의 변인들에 대한 고려도 추후의 연구에서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이와 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유아의 사회적 기술을 발달시키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판단되는 유아를 대상으로 유아의 사회적 기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유아 부모 요인을 설정하여 그에 따른 결과를 살펴 본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를 통해 유아가 사회적 기술을 용이하게 발달시키도록 학부모를 격려하고 지도하는데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주제어** : 부모양육행동, 양육효능감, 사회적 기술

## 참 고 문 헌

- 강기숙, 이정님 (2001)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사려성이 유아의 기계통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동학회지*, 22(4), 115-132.
- 권연희 (1995)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간의 관계.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민정, 도현심 (2001) 부모의 양육행동, 부부갈등 및 아동

- 의 형제자매관계와 아동의 공격성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2(2), 149-166.
- 김정희, 문혁준 (1998)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에 관련된 변인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6(1), 91-101.
- 도현심, 최미경 (1998)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또래개념과 아동의 자아존중감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19(2), 19-33.
- 문혁준 (1999) 취업모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부모효능감이 자녀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7(6), 97-107.
- 박영애 (1995) 부모의 양육행동 및 형제관계와 아동의 자존감과 관계.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주희, 이은혜 (2001) 아도의 또래 유능성에 관련된 어머니의 양육목표, 양육행동 및 또래관계 관리전략. *아동학회지*, 22(4), 1-15.
- 안선희, 권희경(2005). 유아의 학습관련 사회적 기술과 문식성 발달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26(4), 173-188.
- 안선희, 김선영(2004). 가족의 건강성과 양육효능감 및 유아의 사회적 행동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42(12), 219-230.
- 안지영(2001). 2-3세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신념, 효능감 및 스트레스가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연미희 (1998) 부모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사회정서적 발달간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6(7), 111-122.
- 연진영 (1992) 아동학대의 실태 및 영향.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우희정, 이숙 (1994) 가정환경과 아동의 자기효능감간의 인과모형 탐색. *아동학회지*, 15(1), 71-90.
- 이영주 (1990) 부모의 온정, 통제 및 형제자매 환경에 따른 아도의 친사회적 행동. *대한가정학회지*, 28(2), 107-118.
- 한인자 (1988)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자녀들의 사회성 발달과의 관계 연구.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영숙 (1993) 가족의 사회심리적 환경과 아동의 사회적 역량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박사학위논문.
- 최승원, 이정숙, 서병숙 (1998)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관한 이론적 고찰. *한국생활과학연구*, 16, 53-71.
- 최정미 (2002) 어머니의 성인기 애착과 애정적 양육행동이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0(4), 125-138.
- 최형성, 정옥분 (2001)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척도의 개발. *아동학회지*, 22(3), 1-15.
- 홍계옥 (2001) 어머니의 자기지각, 양육행동 및 유아의 기질과 유아의 사회적 능력. *아동학회지*, 22(2), 181-194.
- Alexander, K. L. (1993) First-grade classroom behavior: Its Short-and long-term consequence for school performance. *Child Development*, 64, 801-814.
- Bandura, A. (1997) *Self-efficacy: the exercise of control*. NY: W. H. Freeman Co.
- Baumrind, D. (1991) *Effective parenting during the early adolescent transition*. In P. A. Cowan & E. M. Hetherington(Eds.), *Family transitions*. NJ: Erlbaum.
- Belsky, J. (1990) Parental and nonparental child care and children's socio-emotional development: A decade in review.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23, 885-903.
- Coleman, P. K. & Karraker, K. H. (1997) Self-efficacy and parenting quality: Findings and future application. *Developmental Review*, 18, 47-85.
- Cooper, D. H. & Farran, D. C. (1988) Behavioral risk factors in kindergarten.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3, 1-19.
- Cooper, D. H., & Farran, D. C. (1991). *The Cooper-Farran behavior rating scales*. Brandon, VT: Clinical Psychology Publishing Co., Inc.
- Dombusch, S. M., Ritter, P. L., Leiderman, P. H., Roberts, D. F., & Fraleigh, M. J. (1987) The relation of parenting style to adolescent school performance. *Child Development*, 58, 1244-1257.
- Dumka, L. E., Stoerzinger, H. D., Jackson, K. M., & Roosa, M. W. (1996) Examination of the cross-cultural and cross-language equivalence of the parenting self-agency measure. *Family Relations*, 45, 216-222.
- Eisenberg, N., Fabes, R. A., Carlo, G., Troyer, D., Speer, A. L., Karbon, M., & Switzer, G. (1992) The relations of maternal practices and characteristics to children's vicarious responsiveness. *Child Development*, 63, 583-602.
- Estrada, P., Arsenio, W. F., Hess, R. D., & Holloway, S. D. (1987) Affective quality of the mother-child relationship: Longitudinal consequences for children's school-relevant cognitive functioning. *Developmental Psychology*, 23, 210-215.
- Ford, M. E. (1982) Social cognition and social competence in adolescence. *Developmental Psychology*, 18, 323-340.
- Gondoli, D. M. & Silverberg, S. B. (1977) Maternal emotional distress and diminished responsiveness: The mediating role of parenting efficacy and parental perspective taking. *Developmental Psychology*, 33(5), 861-868.
- Lamborn, S. D., Mounts, N. S., Steinberg, L., & Dombusch,

- S. M. (1991) Patterns of competence and adjustment among adolescents from authoritative, authoritarian, indulgent, and neglected families. *Child Development, 62*, 1049-1065.
- Ladd, G. W. & Price, J. M. (1987) Predicting children's social and school adjustment following the transition from preschool to kindergarten. *Child Development, 58*, 1168-1189.
- Ladd, G. W., Kochenderfer, D., & Coleman, C. (1996) Friendship quality as a predictor of young children's early school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7*, 1103-1118.
- Lytton, H. & Romney, D. (1991) Parents' differential socialization of boys and girls: A meta-analysis. *Psychological Bulletin, 109*, 267-296.
- McClelland, M. M. & Morrison, F. J. (2003) The emergence of learning-related social skill in preschool children.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18*, 206-224.
- McClelland, M. M., Morrison, F. J., & Holmes, D. H. (2000). Children at-risk for early academic problems: The role of learning-related social skills.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15*, 307-329.
- McClelland, M. M. & Hansen, E. E. (2001) *A follow-up of children with poor work-related skills: Do problems persist at the end of elementary school?* Post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Society for the Scientific Study of Reading, Boulder, CO.
- Mackinnon-Lewis, C., Stames, R., Volling, B., & Johnson, S. (1997) Perceptions of parenting as predictors of boys' sibling and peer relations. *Developmental Psychology, 33*, 1024-1031.
- McDonald, K. (1992) Warmth as a developmental construct: An evolutionary analysis. *Child Development, 63*, 753-773.
- O'Mally, J. M. (1977) Research perspective on social competence. *Merill Palmer Quarterly, 23*(11), 29-44.
- Patterson, G. R., DeBaryshe, B. D., & Ramsey, E. (1989) A Developmental perspective on antisocial behavior. *American Psychologist, 44*, 329-335.
- Petit, G. S., Dodge, K. A., & Brown, M. M. (1988) Early experience, social problem solving patterns and social children's social competence. *Child Development, 58*, 324-340.
- Scheel, M. J. & Rieckmann, T. (1998) An empirically derived description of self-efficacy and empowerment for parents of children identified as psychologically disordered. *The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47*, 15-27.
- Speece, D. L. & Cooper, D. H. (1990) Ontogeny of School Failure: Classification of First-Grade Children.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Journal, 27*(1), 119-140.
- Steinberg, L., Lamborn, S. D., Darling, N., Mounts, M. S., & Dornbusch, S. M. (1989) Authoritative parenting, psychological maturity, and academic success among adolescents. *Child Development, 60*, 1424-1436.
- Teti, O. M. & Gelfand, D. M. (1991) Behavioral competence among mothers of infants on the first year: The mediational role of maternal self-efficacy. *Child development, 62*, 918-929.
- Zahn-Waxler, C., Radke-Yarrow, M., & King, R. A. (1979) Childrearing and children's prosocial initiations towards victims of distress. *Child Development, 50*, 319-330.

(2007. 03. 10 접수; 2007. 05. 29 채택)